

## 첨단 광학 전문기업으로 도약

1977년 항공기 엔진 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한 삼성테크윈(대표 이종구, 구 삼성항공)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산업과 정밀기계산업 등 국가와 산업현장에 중요한 첨단기술 및 자본재 사업을 수행해왔다.

1999년에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업을 국내항공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 이관하고, 현재는 항공기 엔진과 터보기기를 포함한 엔진사업과 자주포 등의 특수사업 그리고 카메라와 광응용기기를 포함한 광디지탈시스템 사업, 반도체 부품과 장비등의 반도체시스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광디지탈 시스템 사업은 1979년부터 35mm카메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로 다양한 독자 모델의 카메라를 생산해왔으며, 1994년 세계최초로 4배줌 카메라를 개발한데 이어 카메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EISA상(유럽영상음향협회)과 TIPA상(유럽기술영상협회)등을 수상하면서 품질과 디자인에서 최고 수준의 카메라 업체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카메라 사업의 Global Operation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국천진카메라와 합작생산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의 결과로 지난 1998년에 유럽시장의 고배율 줌 카메라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카메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여년간의 축적된 광학기술 (Image 및 화상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CCTV 시스템, 실물화상기 등을 자체 개발하여 광응용분야에서도 국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수준의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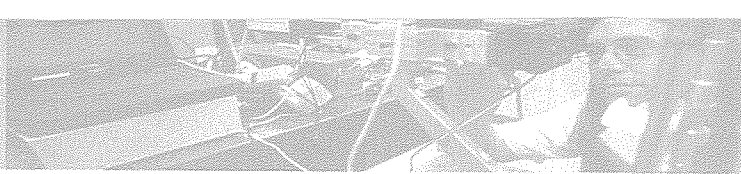
삼성테크윈은 1999년 35mm카메라의 수입선 다변화 조치 해제로 인해 시장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카메라 부문에서 25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 55%를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매출목표 3000억원과 국내 시장점유율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IMF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광고 판촉 활동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제품을 적시에 출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입 개방이후 금년에 들어와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일본 업체들이 자체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 광디지탈시스템 사업은 독자모델의 카메라를 개발,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다.



높이기 위해 대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카메라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영업 전략 및 고객밀착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대소비자 광고 판촉 활동 강화를 통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210만화소급 3배줌 디지털 카메라를 독자 개발로 출시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의 요소기술력을 배가하여 다양한 고화소의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35mm카메라에 대체하여 고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응용분야는 실물화상기와 CCTV의 판매 호조로 2000년도 572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전년대비 42%의 증가하였으며, 향후 중국 및 아시아의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매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35mm카메라부분의 축적된 광학기술과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WEB Based 카메라등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태동기인 인터넷 시큐리티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광관련 사업의 다각화

20여년간 국내 광학산업을 선도해온 삼성테크윈은 그동안 축적해온 정밀금형기술, 렌즈가공기술, 정밀성형기술, 코팅기술등의 보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광관련부문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비구면 렌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고가의 비구면 가공기를 도입, 운영하여 정밀금형 가공기술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구면 렌즈 소모 업체로부터 비구면렌즈 금형의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광통신관련 벤처기업과 페롤금형을 공동 개발하여 국내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페롤업체들이 그동안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의 금형을 국산화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술의 해외

의존도에서 탈피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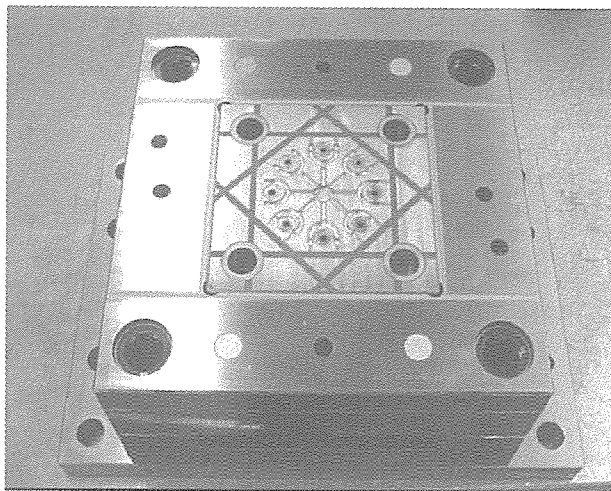
광디지털시스템사업부는 Set제품의 핵심이되는 광모듈 사업에도 참여하여 Projection Display분야의 핵심모듈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 대규모의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Display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광모듈의 Core Device를 내제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기반기술이 취약한 고난도 코팅기술 및 공정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 및 향후 2~3년간 집중적인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사양의 고난도 코팅이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밀가공, 다층막 코팅 및 측정기술등의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광통신 부품분야에 참여하여 국내 광통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디지털시스템사업부는 최근 Set제품과 Core Device를 축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35mm/DSC카메라, 광응용, 광모듈사업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구조 재편이 완료되는 2003년경에는 국내 광학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취재 / 김현희 기자〉



▲ 삼성테크윈이 개발한 페롤금형